

치근단농양의 처치

치근단농양은 일명 급성치조골농양이라고도 하며 치근단에 발생된다. 주로 치수조직에 손상을 받은 직후나 외상을 받은 후 오랜 시간 경과 후 실효된 또는 변성된 치수에서 초래된다.

임상소견은 초기 치조골내 국한되어 외부의 증상들을 보이지 않으며 환자는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. 치조골을 뚫고 진행됨에 따라 골막하농양을 형성하기도 한다. (사진 1, 2)연조직에 침범하였을 때 화농되기전 전반적인 붓화직염(cellulitis)를 형성한다. 이시기는 촉진시 단단하며 압통을 보이고 심한 불편감을 호소한다. 이때를 경결(induration)이라고 한다. (사진 3)

치료

1) 경결의 시기-감염을 발생부위에 국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치료한다.

㉔ 구강내, 외로 온습점질

㉕ 국소화된 후에 배농시켜야 한다.

생리학적으로 이시기에 생체는 감염주위에 보호막을 만들어 ㉖전신적인 확산을 막으며 ㉗농

양공동내에 화농성 골절의 축적이 촉진된다.

2) 절개 및 배농

㉘ 화농이 되어 치조골 외측으로도 침범하였을 때 치아의 발거와 함께 절개를 한다. (사진 4)

㉙ 치아를 남겨둘 때 치수관을 통한 배농을 시도하며 농양이 형성된 부위에 따라 협순측 또는 구개측으로 절개한다. (사진 5, 6)

3) 감염원인 치아의 처치

㉚ 원인치아의 치수관을 개방하여 이곳을 통하여 배농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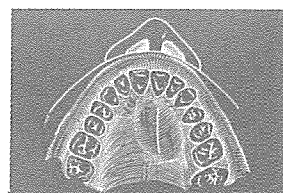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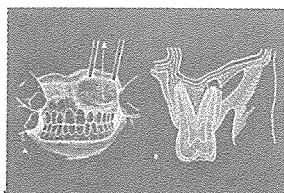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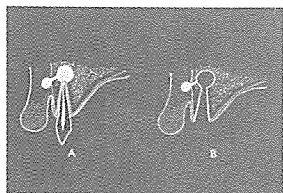
㉛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없으면 치아를 발거한다. 발치가 지연될 때 감염이 타부위로 확산될 수도 있으며 또한 골수염이나 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.

4) 항생제투여

급성 감염의 증상이 있을때 신속히 적절한 혈액내 농도를 가질수 있도록 투여한다.



사진 1 치조골농양이 신장됨에 따라 중추 또는 구개측 치조골을 뚫고 확산된다.
사진 2 침출 치조골을 뚫고 나온 상태
사진 3 좌측 앞면부에 종창을 보이고 있다.
사진 4 농양이 치조골 외부로 뚫고 나왔을 때 치아의 발거와 함께 절개하여야 한다.
사진 5 순측 및 협측에서의 절개
사진 6 구개 농양의 절개, 전구개혈관 및 신경 손상을 주지 않도록 치은연이나 경중선 가까이에서 절개한다.



신일치과기공소

代表 孫 永 受

서울·중구 남대문로 5가 6-25(신한빌딩 402호)

☎ 756-2875 · 2876